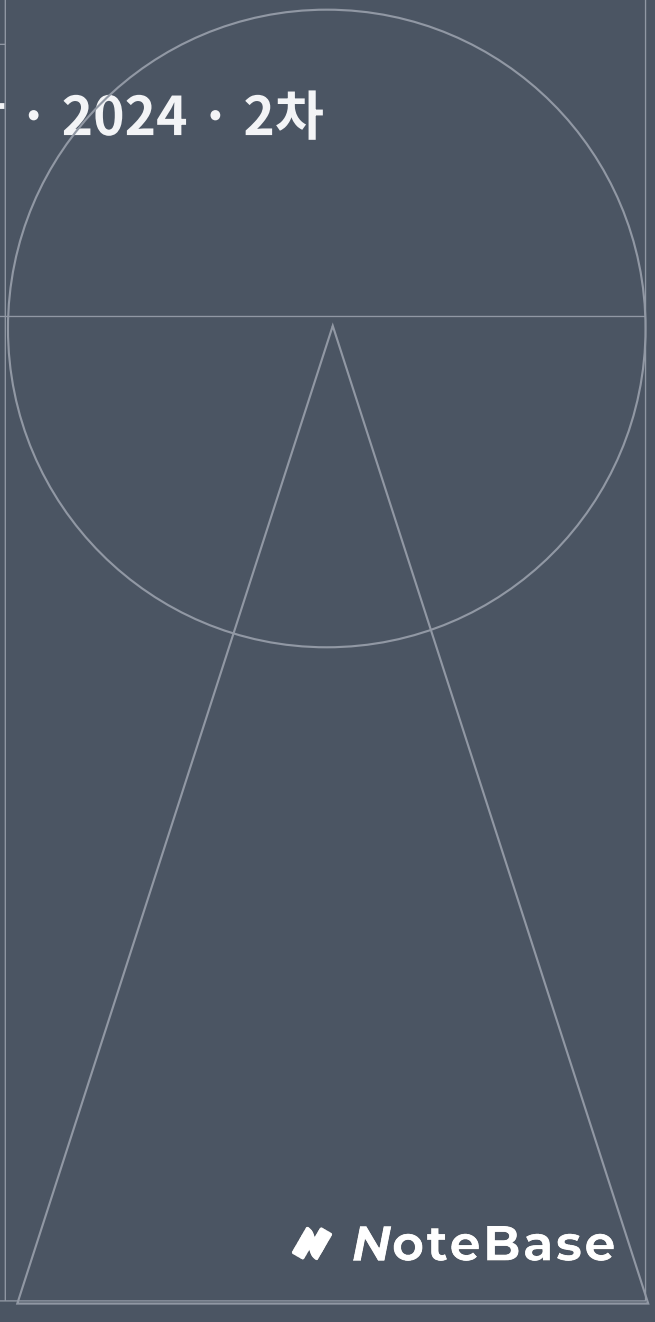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국가직/7급 · 회계학 · 2024 · 2차



NoteBas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국가직/7급 · 회계학 · 2024 · 2차

공무원/국가직/7급 · 회계학 · 2024 · 2차

문 1. 재무제표 표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부적절한 회계정책은 이에 대하여 공시나 주석 또는 보충 자료를 통해 설명된다면 정당화될 수 있다.

②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요구하거나 허용하지 않는 한 자산과 부채 그리고 수익과 비용은 상계하지 아니한다.

③ 유사한 항목은 중요성 분류에 따라 재무제표에 구분하여 표시한다. 상이한 성격이나 기능을 가진 항목은 구분하여 표시한다. 다만 중요하지 않은 항목은 성격이나 기능이 유사한 항목과 통합하여 표시할 수 있다.

④ 재무제표는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을 공정하게 표시해야 한다. 공정한 표시를 위해서는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에서 정한 자산, 부채, 수익 및 비용에 대한 정의와 인식요건에 따라 거래, 그 밖의 사건과 상황의 효과를 충실하게 표현해야 한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재무제표 표시에서 공정한 표시, 상계 금지, 중요성에 따른 구분·통합 표시, 부적절한 회계정책 공시의 한계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공정한 표시는 거래와 사건의 효과를 자산, 부채, 수익, 비용의 정의와 인식요건에 맞게 충실하게 표현하는 것이다.
부적절한 회계정책은 주석, 공시, 보충자료를 덧붙여도 정당화되지 않는다.
자산과 부채, 수익과 비용은 기준서가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가 아니면 상계하지 않는다.
유사한 항목은 중요성에 따라 구분 표시하고, 중요하지 않은 항목만 성격이나 기능이 유사한 항목과 통합하여 표시할 수 있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부적절한 회계정책은 공시나 주석으로 보완된다고 해서 적정한 회계정책이 되지 않는다.
틀린 표현은 "설명된다면 정당화될 수 있다"이다.
올바르게는 "부적절한 회계정책은 공시나 주석 또는 보충자료를 붙여도 정당화되지 않는다"이다.

② O
재무제표 표시는 총액주의가 원칙이므로 자산과 부채, 수익과 비용은 임의로 상계하지 않는다.
기준서가 상계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예외가 있을 때만 상계가 가능하므로 선지의 설명이 맞다.

③ O
중요한 유사 항목은 별도로 구분해 표시하고, 성격이나 기능이 다른 항목도 구분 표시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중요하지 않은 항목은 유사 항목과 통합 표시할 수 있으므로 중요성과 통합 표시의 관계를 정확히 설명한 선지이다.

④ O
재무제표의 목적은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현금흐름을 공정하게 표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거래와 사건의 효과를 개념체계의 정의와 인식요건에 따라 충실하게 표현해야 하므로 선지의 설명이 맞다.

오답 포인트

①의 "공시하면 정당화될 수 있다"와 ④의 "공정한 표시를 위해 추가 설명이 필요할 수 있다"를 혼동하기 쉽다.
추가 공시는 적정한 회계처리를 더 잘 이해시키는 수단일 뿐이고, 잘못된 회계정책 자체를 정당화하는 수단은 아니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재무제표 표시 문제에서는 먼저 총액주의와 중요성 원칙을 떠올리고, 그다음 공시가 잘못된 회계처리를 덮을 수 있는지 본다. 공시로 오류를 정당화할 수 없고, 상계는 예외적 허용이며, 중요하지 않은 항목만 통합 가능하다는 기준으로 판단하면 된다.

암기 포인트

공시로 오류를 덮지 못하고, 상계는 예외이며, 중요성에 따라 구분·통합 표시한다.

NoteBase

문 2. 다음은 20×1년 초 설립된 (주)한국의 20×1년 중 자기주식 거래내역이다. (주)한국의 6월 30일 자기주식 관련 분개는?

일 자	자기주식 거래	주당 금액	주식 수
4월 1일	취득	₩ 6,200	30주
5월 1일	처분	₩ 6,300	10주
6월 30일	처분	₩ 5,900	10주

① (차) 현금 ₩59,000, 자기주식처분손실 ₩3,000
(대) 자기주식 ₩62,000

② (차) 현금 ₩59,000, 자기주식처분이익 ₩1,000, 자기주식처분손실 ₩2,000
(대) 자기주식 ₩62,000

③ (차) 현금 ₩59,000 (대) 자기주식 ₩50,000 자기주식처분이익 ₩9,000

④ (차) 현금 ₩59,000, 자기주식처분손실 ₩4,000
(대) 자기주식 ₩63,000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자기주식 처분 시 처분금액과 장부가액의 차이를 계산하고, 기존 자기주식처분이익 잔액으로 먼저 상계하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4월 1일에 30주를 주당 6,200원에 취득하였다.
5월 1일에 10주를 주당 6,300원에 처분하여 자기주식처분이익 1,000원이 발생하였다.
6월 30일에 10주를 주당 5,900원에 처분하였다.
구해야 할 값은 6월 30일 자기주식 관련 분개이다.

사용할 공식

처분주식의 장부가액은 취득원가로 계산한다. 처분손실은 장부가액이 처분금액보다 큰 금액이며, 자기주식처분손실은 기존 자기주식처분이익 잔액을 먼저 상계한 뒤 남는 금액만 인식한다.

NoteBase

계산 과정

1. 6월 30일에 처분한 10주의 장부가액은 10 × 6,200 = 62,000원이다.
2. 처분금액은 10 × 5,900 = 59,000원이다.
3. 이번 처분에서 발생한 차액은 3,000원 손실이다.
4. 5월 1일에 이미 자기주식처분이익 1,000원이 발생했으므로 이를 먼저 차변에 상계한다.
5. 따라서 6월 30일 분개는 차변에 현금 59,000원, 자기주식처분이익 1,000원, 자기주식처분손실 2,000원, 대변에 자기주식 62,000원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현금 59,000원과 자기주식 62,000원은 맞지만 손실을 3,000원 전액 인식한 점이 틀리다. 기존 자기주식처분이익 1,000원을 먼저 상계해야 하므로 올바르게는 자기주식처분손실 2,000원만 남는다.
② O: 장부가액 62,000원과 처분금액 59,000원의 차이 3,000원 중 기존 자기주식처분이익 1,000원을 먼저 차변에 상계하고, 남은 2,000원을 자기주식처분손실로 처리한 분개이므로 옳다.
③ X: 자기주식을 10주 처분했으므로 대변 자기주식은 취득원가 기준 62,000원이어야 한다. 틀린 표현은 자기주식 50,000원과 자기주식처분이익 9,000원이며, 올바르게는 자기주식 62,000원이고 이번 거래는 이익이 아니라 손실 상황이다.
④ X: 대변 자기주식을 63,000원으로 기록한 점이 틀리다. 자기주식은 처분시점의 시장가치가 아니라 취득원가 62,000원으로 제거하므로, 올바르게는 대변 자기주식 62,000원이며 손실도 4,000원이 아니라 2,000원만 남는다.

오답 포인트

이번 처분 자체의 차손 3,000원만 보고 바로 손실로 적으면 ①에 끌리기 쉽다. 그러나 자기주식처분손실은 기존 자기주식처분이익 잔액을 먼저 상계한 뒤 남는 금액만 인식한다는 점이 함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자기주식 처분 문제는 먼저 처분주식의 장부가액을 취득원가로 계산하고, 다음에 처분금액과 비교해 차이를 구한 뒤, 과거 자기주식처분이익 잔액이 있는지 확인하여 손실을 순서대로 상계하면 된다.

암기 포인트

자기주식 처분은 취득원가로 제거하고, 처분손실은 기존 자기주식처분이익부터 먼저 상계한다.

NoteBase

문 3. 다음 자료를 이용한 (주)한국의 당기순이익은?

기초 자산: ₩1,000,000, 기초 부채: ₩600,000
기말 자산: ₩1,400,000, 기말 부채: ₩800,000
현금배당: ₩50,000, 무상증자: ₩10,000
유상증자: ₩50,000, 기타포괄이익: ₩60,000

① ₩130,000
② ₩140,000
③ ₩150,000
④ ₩200,000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기초자본과 기말자본의 변동에서 소유주와의 거래와 기타포괄이익을 제외하여 당기순이익을 구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조건 정리

기초자본은 1,000,000원 - 600,000원 = 400,000원이다.
기말자본은 1,400,000원 - 800,000원 = 600,000원이다.
총자본 증가액은 200,000원이다.
현금배당 50,000원은 자본 감소 항목, 유상증자 50,000원은 소유주 출자에 따른 자본 증가 항목, 기타포괄이익 60,000원은 당기순이익에 포함되지 않는 자본 증가 항목이다.
무상증자 10,000원은 자본 내부 대체이므로 총자본을 변동시키지 않는다.

사용할 공식

당기순이익 = 기말자본 - 기초자본 - 유상증자 - 기타포괄이익 + 현금배당이다.
이 공식은 자본 변동액에 섞여 있는 소유주와의 거래와 당기순이익 외 포괄손익을 제거해야 당기순이익만 남기 때문이다.

계산 과정

1. 기초자본은 400,000원, 기말자본은 600,000원이므로 자본은 200,000원 증가하였다.
2. 자본 증가액 200,000원에는 유상증자 50,000원과 기타포괄이익 60,000원이 포함되어 있다.
3. 현금배당 50,000원은 자본을 감소시키므로 당기순이익을 역산할 때 다시 더한다.
4. 따라서 당기순이익은 200,000원 - 50,000원 - 60,000원 + 50,000원 = 140,000원이다.

NoteBase

선지 판단

① X: 130,000원은 구한 당기순이익 140,000원에서 무상증자 10,000원을 추가로 차감한 값이다. 틀린 표현은 '무상증자도 당기순이익 계산에서 빼야 한다'이고, 올바르게는 무상증자는 자본 내부 대체이므로 총자본도 당기순이익도 바꾸지 않는다.
② O: 기초자본 400,000원, 기말자본 600,000원으로 자본이 200,000원 증가하였고, 여기서 유상증자 50,000원과 기타포괄이익 60,000원을 제외한 뒤 현금배당 50,000원을 더하면 140,000원이다.
③ X: 150,000원은 유상증자 50,000원만 조정하고 기타포괄이익 60,000원과 현금배당 50,000원의 영향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값이다. 틀린 표현은 '자본 증가액에서 출자만 빼면 당기순이익이 된다'이고, 올바르게는 기타포괄이익은 빼고 현금배당은 더해 조정해야 한다.
④ X: 200,000원은 자본 순증가액을 그대로 당기순이익으로 본 값이다. 틀린 표현은 '기말자본 - 기초자본이 곧 당기순이익이다'이고, 올바르게는 자본 순증가액에서 유상증자와 기타포괄이익을 빼고 현금배당을 더해야 당기순이익이 된다.

오답 포인트

자본 순증가액과 당기순이익을 같은 것으로 보면 틀린다. 특히 유상증자는 소유주와의 거래, 기타포괄이익은 당기순이익 외 항목, 무상증자는 자본 내부 대체라는 점을 구분하지 못하면 오답으로 이어진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자본변동 문제는 먼저 기초자본과 기말자본을 계산한 뒤, 그 증가분에서 소유주 출자와 기타포괄이익을 제외하고 배당은 다시 더하는 순서로 판단한다. 무상증자처럼 자본 내부에서만 이동하는 항목은 총자본 변화에 반영하지 않는다.

암기 포인트

당기순이익은 자본 순증가액에서 출자와 기타포괄이익을 빼고 배당을 더해 구한다. 무상증자는 총자본 효과가 0이다.

NoteBase

문 4. 다음 결산수정분개 중 자산이 감소하고 비용이 발생하는 것은?

① 수익은 발생하였으나 아직 현금을 수취하지 않아 이를 인식하기 위한 결산수정분개

② 비용은 발생하였으나 아직 현금을 지출하지 않아 이를 인식하기 위한 결산수정분개

③ 선수임대료 중 기간 경과로 수익이 실현된 부분을 인식하기 위한 결산수정분개

④ 선급보험료 중 기간 경과된 부분을 비용으로 인식하기 위한 결산수정분개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항은 결산수정분개가 자산·부채·수익·비용 중 어떤 계정을 증감시키는지 구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미수수익은 수익은 이미 발생했지만 아직 현금을 받지 않은 상태이므로 자산이 증가하고 수익이 발생하는 항목이다.
미지급비용은 비용은 이미 발생했지만 아직 현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부채가 증가하고 비용이 발생하는 항목이다.
선수수익의 기간 경과분 대체는 선수로 받은 금액 중 의무가 이행된 부분을 수익으로 바꾸는 것이므로 부채가 감소하고 수익이 발생하는 항목이다.
선급비용의 기간 경과분 대체는 미리 지급한 금액 중 이미 사용한 부분을 비용으로 바꾸는 것이므로 자산이 감소하고 비용이 발생하는 항목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수익은 발생했으나 현금을 아직 받지 않은 경우는 미수수익을 인식하는 결산수정분개이다. 이 경우 틀린 표현은 자산이 감소한다는 전제이다. 올바르게는 미수금이나 미수수익 같은 자산이 증가하고 수익이 발생한다.
② X: 비용은 발생했으나 현금을 아직 지급하지 않은 경우는 미지급비용을 인식하는 결산수정분개이다. 틀린 표현은 자산이 감소하는 유형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이다. 올바르게는 미지급금이나 미지급비용 같은 부채가 증가하고 비용이 발생한다.
③ X: 선수임대료 중 기간이 경과한 부분을 수익으로 인식하면 처음에 잡아 두었던 선수수익이 줄어든다. 틀린 표현은 비용 발생형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이다. 올바르게는 부채가 감소하고 수익이 발생한다.
④ O: 선급보험료 중 기간이 경과된 부분은 더 이상 자산이 아니라 당기의 보험료 비용이다. 따라서 선급보험료라는 자산이 감소하고 보험료비용이 발생하므로 발문과 일치한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미수와 선수, 미지급과 선급을 현금의 수수 여부만으로 외우면 자산·부채 방향을 뒤섞기 쉽다. 특히 ③과 ④는 모두 기간 경과분을 대체하는 분개이지만 ③은 선수수익의 감소와 수익 발생, ④는 선급비용의 감소와 비용 발생이라는 점이 핵심 함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현금을 이미 주고받았는지로 선급·선수와 미수·미지급을 나눈다. 그다음 기간 경과 후 무엇으로 대체되는지 본다. 자산이 비용으로 바뀌면 선급비용의 비용 대체이고, 부채가 수익으로 바뀌면 선수수익의 수익 대체이다.

암기 포인트

미수수익은 자산 증가, 미지급비용은 부채 증가, 선수수익 대체는 부채 감소, 선급비용 대체는 자산 감소이다.

NoteBase

문 5. 현금흐름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이자와 차입금을 함께 상환하는 경우, 이자지급은 영업활동으로 분류될 수 있고 원금상환은 재무활동으로 분류된다.

② 종속기업과 기타 사업에 대한 지배력의 획득 또는 상실에 따른 총현금흐름은 별도로 표시하고 재무활동으로 분류한다.

③ 법인세로 인한 현금흐름은 별도로 공시하며, 재무활동과 투자활동에 명백히 관련되지 않는 한 영업활동 현금흐름으로 분류한다.

④ 투자자산이 현금성자산으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확정된 금액의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가치변동의 위험이 경미해야 한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항은 현금흐름표에서 영업활동·투자활동·재무활동을 어떻게 구분하는지와 현금성자산의 요건을 정확히 아는지를 묻는다.

핵심 개념

영업활동은 기업의 주된 수익창출활동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과 투자·재무활동이 아닌 현금흐름이다.
투자활동은 장기자산 취득·처분과 다른 기업에 대한 투자 및 지배력의 획득·상실과 관련된 현금흐름이다.
재무활동은 자본과 차입금의 규모 및 구성 변동을 가져오는 현금흐름이다.
현금성자산은 단기이고 유동성이 높으며 확정된 금액의 현금으로 쉽게 전환되고 가치변동위험이 경미한 투자자산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이자와 차입원금을 함께 상환하는 경우 원금상환은 차입금 감소이므로 재무활동 현금흐름이다. 이자지급은 회계정책에 따라 영업활동 또는 재무활동으로 분류할 수 있으므로, 영업활동으로 분류될 수 있다는 진술은 맞다.
② X
틀린 부분은 "종속기업과 기타 사업에 대한 지배력의 획득 또는 상실에 따른 총현금흐름은 별도로 표시하고 재무활동으로 분류한다"는 표현이다. 지배력의 획득 또는 상실에 따른 총현금흐름은 별도로 표시하되 투자활동으로 분류한다.
③ O
법인세로 인한 현금흐름은 별도로 공시하고, 재무활동이나 투자활동과 명백히 관련되는 경우를 제외하면 영업활동 현금흐름으로 분류한다. 선지의 서술이 기준서의 원칙과 일치한다.
④ O
현금성자산은 확정된 금액의 현금으로 쉽게 전환할 수 있고 가치변동위험이 경미해야 한다. 선지는 현금성자산의 핵심 요건을 그대로 설명하고 있으므로 맞다.

오답 포인트

②는 지배력의 획득·상실을 자본조달이나 차입금 변동처럼 보이게 만들어 재무활동으로 오인하게 만든다. 그러나 이 항목은 다른 기업에 대한 투자와 처분의 성격이므로 투자활동으로 분류한다. ①의 이자지급 분류 선택 가능성과 ③의 법인세 현금흐름 기본 분류 원칙까지 함께 흔들리면 복수 선지가 틀려 보이는 함정이 생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현금흐름표 분류 문제는 먼저 무엇이 변하는지 본다. 장기자산·타기업 지배력·투자 처분이 바뀌면 투자활동, 자본·차입금의 규모가 바뀌면 재무활동, 그 외의 기본 영업 관련 현금흐름은 영업활동으로 판단한다. 법인세는 원칙적으로 영업활동에 두고, 특정 투자·재무거래와 명백히 연결될 때만 예외를 검토한다.

암기 포인트

지배력 취득·상실은 투자활동, 원금상환은 재무활동, 법인세는 원칙적으로 영업활동이다.

NoteBase

문 6. 유동부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매입채무 그리고 종업원 및 그 밖의 영업원가에 대한 미지급비용과 같은 유동부채는 기업의 정상영업주기 내에 사용되는 운전자본의 일부이다. 이러한 항목은 보고기간 후 12개월 후에 결제일이 도래한다 하더라도 유동부채로 분류한다.

② 기업이 보고기간말 현재 기존의 대출계약조건에 따라 보고기간 후 적어도 12개월 이상 부채를 연장할 권리가 있다면,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만기가 도래한다 하더라도 비유동부채로 분류한다. 만약 기업에 그러한 권리가 없다면, 차환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유동부채로 분류한다.

③ 대여자가 보고기간말 이전에 보고기간 후 적어도 1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주는 데 합의하여 그 유예기간 내에 기업이 위반사항을 해소할 수 있고, 또 그 유예기간 동안에는 대여자가 즉시 상환을 요구할 수 없다면 그 부채는 비유동부채로 분류한다.

④ 보고기간말 이전에 장기차입약정을 위반했을 때 대여자가 즉시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채무는 보고기간 후 재무제표 발행승인일 전에 채권자가 약정위반을 이유로 상환을 요구하지 않기로 합의한다면 비유동부채로 분류한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를 가르는 기준이 보고기간말 현재의 결제 연기 권리와 약정 위반에 대한 유예·면제 합의 시점에 달려 있음을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유동부채는 정상영업주기 안에서 결제되는 운전자본성 부채이거나,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 결제의무가 있거나, 보고기간말 현재 12개월 이상 결제를 연기할 권리가 없는 부채이다.
비유동부채는 보고기간말 현재 실질적으로 12개월 이상 결제를 연기할 권리가 있는 부채이다.
차입약정 위반이 있어도 보고기간말 이전에 1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이 약정되면 비유동부채가 될 수 있지만, 면제나 유예 합의가 보고기간 후에 이루어지면 분류를 바꾸지 못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매입채무와 종업원급여 관련 미지급비용은 정상영업주기 내 운전자본의 일부인 대표적 유동부채이다. 이런 항목은 결제일이 12개월을 넘더라도 정상영업주기에 따라 유동부채로 분류한다.
② O: 보고기간말 현재 기존 대출계약조건에 따라 12개월 이상 결제를 연기할 권리가 있으면 만기가 12개월 이내여도 비유동부채로 분류한다. 반대로 그런 권리가 없으면 장래 차환 가능성이나 경영진의 기대를 보지 않고 유동부채로 분류한다.
③ O: 보고기간말 이전에 대여자가 적어도 1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주기로 합의했고, 그 기간 안에 위반을 해소할 수 있으며, 그 기간 중 즉시상환을 요구할 수 없다면 보고기간말 현재 결제를 연기할 권리가 있으므로 비유동부채로 분류한다.
④ X: 틀린 부분은 '보고기간 후 재무제표 발행승인일 전에 채권자가 약정위반을 이유로 상환을 요구하지 않기로 합의한다면 비유동부채로 분류한다'는 부분이다. 보고기간말 이전에 장기차입약정을 위반해 대여자가 즉시상환을 요구할 수 있었다면 그 시점에 유동부채가 된다. 올바르게는 보고기간 후에 면제나 유예 합의가 이루어져도 분류는 바뀌지 않으므로 유동부채로 분류한다.

오답 포인트

함정은 '재무제표 발행승인일 전'이라는 문구이다. 수험생이 보고기간 후의 후속 합의까지 반영해 비유동부채로 바꾸기 쉽지만, 분류 기준은 보고기간말 현재의 권리 존재 여부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차입부채 분류 문제는 먼저 보고기간말 현재 12개월 이상 결제를 미룰 권리가 있었는지를 본다. 그다음 약정 위반이 있었다면 유예나 면제 합의가 보고기간말 이전에 있었는지, 보고기간 후에 있었는지를 구분하면 된다.

암기 포인트

유동·비유동 분류는 보고기간말 현재의 권리로 판단하고, 보고기간 후 합의는 늦는다.

NoteBase

문 7. 자본 및 자본유지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재무자본유지는 명목화폐단위 또는 불변구매력단위를 이용하여 측정할 수 있다.

② 실물자본유지개념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역사적 원가기준에 따라 측정해야 한다.

③ 실물자본유지개념 하에서 기업의 자산과 부채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가격변동은 해당 기업의 실물생산능력에 대한 측정치의 변동으로 간주되어 이익으로 처리된다.

④ 재무자본유지개념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역사적 원가기준에 의해서만 측정해야 한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재무자본유지개념과 실물자본유지개념의 측정기준 및 가격변동 처리 차이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재무자본유지는 기초보다 큰 화폐액의 순자산이 유지된 뒤의 초과분을 이익으로 보는 개념이다. 명목화폐단위 기준과 불변구매력단위 기준이 모두 가능하다.
실물자본유지는 기업의 실물생산능력 또는 영업능력이 유지된 뒤의 초과분만 이익으로 보는 개념이다. 이 개념은 현재원가기준과 연결된다.

선지별 해설

1번: O. 재무자본유지는 자본을 화폐액으로 파악하므로 명목화폐단위로도 측정할 수 있고, 일반물가변동을 반영한 불변구매력단위로도 측정할 수 있다.
2번: X. 틀린 부분은 '역사적 원가기준에 따라'이다. 실물자본유지개념은 기업의 실물생산능력 유지를 보아야 하므로 현재원가기준에 따라 측정하는 것이 맞다.
3번: X. 틀린 부분은 '이익으로 처리된다'이다. 실물자본유지개념에서는 자산과 부채의 가격변동 중 실물생산능력 유지를 위한 부분은 자본유지조정으로 보며, 이익이 아니라 자본의 일부로 처리한다.
4번: X. 틀린 부분은 '역사적 원가기준에 의해서만'이다. 재무자본유지개념은 역사적 원가에만 묶이지 않으며, 명목화폐단위 기준 또는 불변구매력단위 기준으로 측정할 수 있다.

오답 포인트

재무자본유지는 화폐액 기준, 실물자본유지는 생산능력 기준이라는 차이를 놓치면 2번과 4번을 바꿔 고르기 쉽다. 특히 '역사적 원가'와 '현재원가'를 어느 자본유지개념과 연결하는지가 대표적 함정이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자본을 무엇으로 유지하는지부터 구분한다. 화폐액을 유지하면 재무자본유지, 생산능력을 유지하면 실물자본유지이다. 그다음 재무자본유지는 명목화폐단위 또는 불변구매력단위, 실물자본유지는 현재원가기준과 연결된다고 판단하면 된다.

암기 포인트

재무자본유지는 돈의 크기 유지, 실물자본유지는 생산능력 유지이다.

NoteBase

문 8. (주)한국의 20×1년 재고자산(상품)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주)한국의 20×1년 포괄손익계산서상 매출원가는?

◯ 기초 재고자산의 재고자산평가손실충당금은 ₩10,000이며, 이를 차감하기 전 기초 재고자산가액은 ₩50,000이다.
◯ 기중 재고자산 매입액은 ₩100,000이다.
◯ 기말 재고자산 현황
— 단위당 취득원가: ₩100, 장부수량: 250개
— 단위당 순실현가능가치: ₩80, 실사수량: 240개
◯ 재고자산평가손실 또는 재고자산평가손실환입과 재고자산감모손실은 전액 매출원가에 반영한다.

① ₩115,000
② ₩120,800
③ ₩125,000
④ ₩130,800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기초 재고의 순액과 기말 재고의 저가법 평가액을 사용하여 매출원가를 계산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기초 재고자산 총액은 50,000원이고 재고자산평가손실충당금 10,000원이 있으므로 순기초재고는 40,000원이다.
기중 재고자산 매입액은 100,000원이다.
기말 장부수량은 250개이지만 실사수량은 240개이므로 감모수량은 10개이고 감모손실은 1,000원이다.
기말 재고는 단위당 취득원가 100원, 단위당 순실현가능가치 80원이므로 저가법 적용 후 단위당 80원으로 평가한다.

사용할 공식

매출원가=기초재고자산(순액)+당기매입액-기말재고자산(순액)
이 공식을 쓰는 이유는 재고자산평가손실과 감모손실을 모두 매출원가에 반영한다고 했으므로 기초와 기말 재고를 모두 순액 기준으로 잡아야 하기 때문이다.

NoteBase

계산 과정

1. 기초 재고자산 순액은 총액 50,000원에서 충당금 10,000원을 차감한 40,000원이다.
2. 기말 재고자산은 실사수량 240개를 기준으로 본다. 취득원가 기준 금액은 24,000원이고 순실현가능가치 기준 금액은 19,200원이다.
3. 저가법에 따라 기말 재고자산은 19,200원으로 평가한다.
4. 따라서 매출원가는 40,000원 + 100,000원 - 19,200원 = 120,800원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115,000원은 기초 충당금 10,000원은 반영했지만 기말 재고를 장부수량 250개와 취득원가 100원으로 본 25,000원으로 처리하여 감모손실 1,000원과 재고자산평가손실 4,800원을 누락한 값이다. 틀린 표현은 매출원가를 115,000원으로 본 부분이며, 올바르게는 120,800원이다.
② O: 순기초재고 40,000원과 당기매입액 100,000원에서 순기말재고 19,200원을 차감하면 120,800원이다. 감모손실과 재고자산평가손실이 모두 매출원가에 반영된 결과이므로 옳다.
③ X: 125,000원은 기초 재고를 충당금 차감 전 총액 50,000원으로 잡고, 기말 재고도 장부수량 250개에 취득원가 100원을 적용한 25,000원으로 본 값이다. 틀린 표현은 기초와 기말 재고를 모두 총액 기준으로 본 부분이며, 올바르게는 기초는 40,000원, 기말은 19,200원으로 보아 120,800원이다.
④ X: 130,800원은 기말 재고를 19,200원으로 평가한 점은 맞지만 기초 재고를 충당금 차감 전 총액 50,000원으로 잡아 기초 재고자산평가손실충당금 10,000원을 누락한 값이다. 틀린 표현은 기초 재고를 50,000원으로 본 부분이며, 올바르게는 순기초재고 40,000원을 사용하여 120,800원이다.

오답 포인트

기초 재고는 총액이 아니라 충당금 차감 후 순액으로 잡아야 한다는 점과, 기말 재고는 장부수량이 아니라 실사수량에 저가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점을 동시에 놓치기 쉽다. ③과 ④는 기초 충당금 누락을 노린 함정이고, ①은 기말의 감모손실과 평가손실 누락을 노린 함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재고자산 계산형은 먼저 기초 재고가 총액인지 순액인지 구분하고, 다음으로 기말 재고를 실사수량 기준으로 잡은 뒤 저가법을 적용하여 순액을 구하면 된다. 마지막에 순기초재고 + 매입액 - 순기말재고 구조로 검산하면 된다.

암기 포인트

매출원가는 순기초재고와 순기말재고로 계산하며, 감모와 평가손실은 기말 재고를 줄이는 방식으로 매출원가에 들어간다.

NoteBase

문 9. (주)한국은 20×1년 초 사채(상각후원가측정 금융부채)를 다음의 조건으로 발행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액면금액: ₩2,000,000
◯ 발행금액: ₩1,900,000
◯ 액면이자율: 연 8%
◯ 유효이자율: 연 10%
◯ 액면이자는 매년 말 지급하고, 원금은 만기에 일시 상환

① 20×1년 이자비용은 ₩190,000이다.
② 20×1년 사채할인발행차금 상각액은 ₩30,000이다.
③ 20×1년 말 사채할인발행차금의 잔액은 ₩60,000이다.
④ 20×2년 초 사채 전액을 ₩1,910,000에 조기상환한다면 상환이익은 ₩20,000이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유효이자법으로 20X1년 이자비용, 사채할인발행차금 상각액, 기말 장부금액, 조기상환손익을 연결해 판단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액면금액은 2,000,000원이다.
발행금액은 1,900,000원이다.
액면이자율은 연 8%이므로 현금이자는 매년 160,000원이다.
유효이자율은 연 10%이다.
할인발행차금 총액은 100,000원이다.

사용할 공식

이자비용 = 기초 장부금액 × 유효이자율
할인발행차금 상각액 = 이자비용 - 현금이자지급액
기말 장부금액 = 기초 장부금액 + 할인발행차금 상각액
이 문제는 할인발행된 사채를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므로 액면이자율이 아니라 유효이자율로 이자비용을 계산해야 한다.

NoteBase

계산 과정

1. 20X1년 초 장부금액은 발행금액인 1,900,000원이다.
2. 20X1년 이자비용은 1,900,000원 × 10% = 190,000원이다.
3. 20X1년 현금이자는 2,000,000원 × 8% = 160,000원이다.
4. 20X1년 사채할인발행차금 상각액은 190,000원 - 160,000원 = 30,000원이다.
5. 20X1년 말 장부금액은 1,900,000원 + 30,000원 = 1,930,000원이다.
6. 20X1년 말 남아 있는 사채할인발행차금은 2,000,000원 - 1,930,000원 = 70,000원이다.
7. 20X2년 초 1,910,000원에 조기상환하면 상환이익은 1,930,000원 - 1,910,000원 = 20,000원이다.

선지 판단

1번: O. 20X1년 이자비용은 기초 장부금액 1,900,000원에 유효이자율 10%를 적용한 190,000원이다.
2번: O. 20X1년 사채할인발행차금 상각액은 이자비용 190,000원에서 현금이자 160,000원을 뺀 30,000원이다.
3번: X. 20X1년 말 사채할인발행차금의 잔액은 총 할인발행차금 100,000원에서 당기 상각액 30,000원을 차감한 70,000원이다. 틀린 표현은 '잔액은 60,000원이다'이고, 올바르게는 '잔액은 70,000원이다'이다.
4번: O. 20X2년 초 장부금액은 20X1년 말 장부금액과 같은 1,930,000원이다. 이를 1,910,000원에 상환하면 채무 장부금액이 더 크므로 상환이익 20,000원이 발생한다.

오답 포인트

상각액 30,000원과 기말 잔액 70,000원을 뒤바꾸면 3번에 속기 쉽다. 유효이자법 문제에서는 당기 상각액, 누적 상각 후 장부금액, 남은 할인발행차금을 서로 다른 값으로 구분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할인발행 사채 문제는 발행금액을 기초 장부금액으로 놓고, 유효이자율로 이자비용을 계산한 뒤, 현금이자를 차감해 상각액을 구하고, 그 상각액으로 기말 장부금액과 남은 할인발행차금을 순서대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할인발행 사채는 이자비용이 현금이자보다 크고, 그 차이만큼 할인발행차금이 상각되어 장부금액이 액면금액에 가까워진다.

NoteBase

문 10. 다음은 (주)한국의 구축물 관련 자료이다. (주)한국이 20×1년 포괄손익계산서상 인식할 비용은?

◯ 20×1년 초 구축물(정액법 상각, 내용연수 4년, 잔존가치 ₩0, 원가모형 적용)을 현금 ₩1,000,000을 지급하고 취득하였다.
◯ (주)한국은 구축물의 내용연수 종료 시점에 이를 해체하여 원상복구해야 할 의무가 있다.
◯ 내용연수 종료 시점에 예상되는 복구비용의 20×1년 초 현재가치는 ₩200,000이며 이는 충당부채의 요건을 충족한다. (단, 복구충당부채 인식 시 적용한 할인율은 연 10%)

① ₩20,000
② ₩220,000
③ ₩300,000
④ ₩320,000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복구충당부채의 현재가치를 구축물 원가에 포함한 뒤 감가상각비와 복구충당부채의 이자비용을 함께 계산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조건 정리

주어진 값: 현금 취득원가 1,000,000원, 복구비용의 현재가치 200,000원, 내용연수 4년, 잔존가치 0원, 할인율 연 10%이다.
구해야 할 값: 20×1년 포괄손익계산서상 인식할 총비용이다.
주의할 조건: 복구의무는 충당부채 요건을 충족하므로 현재가치 200,000원을 자산원가와 부채에 함께 최초 인식하며, 이후에는 감가상각비와 할인차금 상각에 따른 이자비용이 각각 발생한다.

사용할 공식

구축물 원가 = 취득대가 + 복구충당부채의 현재가치이다.
감가상각비 = (취득원가 + 복구충당부채 현재가치 - 잔존가치) ÷ 내용연수이다.
복구충당부채 이자비용 = 기초 복구충당부채 × 할인율이다.
이 공식을 쓰는 이유는 복구의무가 자산 취득과 직접 관련된 원가이므로 최초에는 구축물 원가에 포함되고, 이후 기간에는 시간 경과에 따른 부채 증가분이 이자비용으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NoteBase

계산 과정

1. 구축물 최초 인식원가는 현금 1,000,000원에 복구충당부채 현재가치 200,000원을 더한 1,200,000원이다.
2. 정액법 감가상각비는 $(1{,}200{,}000 - 0) \div 4 = 300{,}000$이므로 300,000원이다.
3. 복구충당부채의 20×1년 이자비용은 $200{,}000 \times 10\% = 20{,}000$이므로 20,000원이다.
4. 따라서 20×1년 비용 총액은 300,000원 + 20,000원 = 320,000원이다.

선지 판단

1번 X: 20,000원은 복구충당부채의 할인차금 상각에 따른 이자비용만 반영한 값이다. 감가상각비 300,000원이 누락되었다. 틀린 표현은 총비용을 20,000원으로 본 점이며, 올바르게는 이자비용 20,000원에 감가상각비 300,000원을 더해 320,000원이다.
2번 X: 220,000원은 복구충당부채 200,000원 자체를 비용으로 처리하고 이자비용 20,000원만 더한 값에 가깝다. 현재가치 200,000원은 최초에 자산원가와 부채로 인식될 뿐 당기비용이 아니다. 틀린 표현은 복구충당부채 현재가치를 곧바로 비용으로 본 점이며, 올바르게는 당기에는 감가상각비 300,000원과 이자비용 20,000원을 인식한다.
3번 X: 300,000원은 구축물 감가상각비만 반영한 값이다. 복구충당부채는 시간 경과에 따라 20,000원의 이자비용이 추가 발생한다. 틀린 표현은 이자비용을 누락한 점이며, 올바르게는 총비용이 320,000원이다.
4번 O: 구축물 원가 1,200,000원에 대한 감가상각비 300,000원과 복구충당부채 이자비용 20,000원을 합하면 320,000원이다. 포괄손익계산서상 인식할 비용 총액과 일치하므로 옳다.

오답 포인트

복구충당부채 현재가치 200,000원을 최초 인식 시점의 당기비용으로 착각하면 2번으로 흐르기 쉽다. 또 구축물 원가에 복구의무가 포함된다는 점을 놓치면 3번처럼 감가상각비만 계산하게 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자산 취득과 함께 복구의무가 주어지면 먼저 현재가치를 자산원가에 포함하는지부터 확인한다. 그다음 당기손익에는 감가상각비와 부채의 시간가치 증가분인 이자비용이 각각 들어가는지를 순서대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복구의무는 처음에는 원가, 이후에는 감가상각비와 이자비용으로 나뉘어 비용화된다.

NoteBase

문 11. 다음은 (주)한국의 20×1년 말 재무상태표상 계정별 잔액이다. (주)한국의 20×1년 말 자산총액이 ₩400,000이고, 유동비율이 150%일 때, 이익잉여금은?

○ 현금	₩ 40,000	○ 매출채권	
○ 재고자산		○ 유형자산	₩ 80,000
○ 투자부동산	₩ 20,000	○ 단기차입금	
○ 매입채무	₩ 160,000	○ 장기차입금	₩ 120,000
○ 자본금	₩ 50,000	○ 이익잉여금	

① ₩10,000

② ₩20,000

③ ₩30,000

④ ₩40,000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총자산과 유동비율을 이용해 유동부채와 자본총계를 역산한 뒤 이익잉여금을 구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주어진 값: 총자산 400,000원, 유동비율 150%, 현금 40,000원, 투자부동산 20,000원, 유형자산 80,000원, 매입채무 160,000원, 장기차입금 120,000원, 자본금 50,000원이다.
구해야 할 값: 이익잉여금이다.
주의할 조건: 유동비율은 유동자산 ÷ 유동부채이며, 이익잉여금은 자본총계에서 자본금을 차감해 구한다.

사용할 공식

공식은 유동비율 = 유동자산 / 유동부채, 자산 = 부채 + 자본이다.
이 공식을 쓰는 이유: 문제는 유동비율과 총자산만 주고 일부 계정을 비워 두었으므로, 먼저 유동자산과 유동부채를 역산한 뒤 전체 부채를 확정해야 자본과 이익잉여금을 구할 수 있다.

NoteBase

계산 과정

1. 비유동자산은 투자부동산 20,000원과 유형자산 80,000원으로 합계 100,000원이다.
2. 유동자산은 총자산 400,000원에서 비유동자산 100,000원을 차감한 300,000원이다.
3. 유동비율이 150%이므로 유동부채는 $300,000/1.5 = 200,000$원이다.
4. 유동부채 200,000원 중 매입채무가 160,000원이므로 단기차입금은 40,000원이다.
5. 총부채는 매입채무 160,000원 + 단기차입금 40,000원 + 장기차입금 120,000원 = 320,000원이다.
6. 자본총계는 총자산 400,000원 - 총부채 320,000원 = 80,000원이다.
7. 이익잉여금은 자본총계 80,000원 - 자본금 50,000원 = 30,000원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이익잉여금은 10,000원이 아니라 30,000원이다. 10,000원은 유동비율로 유동부채를 정확히 역산하지 못해 자본총계를 과소계산한 값이다.
② X: 이익잉여금은 20,000원이 아니라 30,000원이다. 20,000원은 총자산에서 부채를 맞춘 뒤 자본금 차감을 끝까지 하지 못하거나 일부 계정을 누락했을 때 나오는 오답이다.
③ O: 유동자산 300,000원, 유동부채 200,000원, 총부채 320,000원, 자본총계 80,000원을 순서대로 구하면 이익잉여금은 30,000원이다.
④ X: 이익잉여금은 40,000원이 아니라 30,000원이다. 40,000원은 단기차입금 40,000원을 반영하지 않고 자본총계를 크게 잡았을 때 나오는 오답이다.

오답 포인트

함정은 빈칸인 매출채권과 재고자산 개별 금액을 먼저 구하려고 달려드는 데 있다. 이 문제는 두 계정의 개별 금액이 아니라 유동자산 총액과 유동부채 총액만 확정하면 풀리며, 단기차입금 40,000원을 놓치면 이익잉여금이 바로 어긋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재무상태표 계산형은 총자산을 유동과 비유동으로 먼저 나누고, 비율 정보로 유동부채를 역산한 다음, 마지막에 자산 = 부채 + 자본으로 자본총계를 맞춰 세부 자본항목을 구하면 된다.

암기 포인트

유동비율 문제는 유동자산 총액 확정 → 유동부채 역산 → 총부채 계산 → 자본항목 확정의 순서로 정리한다.

NoteBase

문 12. 자산손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을 처음 인식한 경우에는 해당 회계연도 말 전에 손상검사를 하며, 이후 회계기간에는 손상징후와 관계없이 손상검사를 하지 않는다.

② 재평가자산의 손상차손은 해당 자산에서 생긴 재평가잉여금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

③ 손상차손을 인식한 후에 수정된 장부금액에서 잔존가치를 뺀 금액을 자산의 남은 내용연수에 걸쳐 체계적인 방법으로 배분하기 위하여, 자산의 감가상각액이나 상각액을 미래 기간에 조정한다.

④ 영업권에 인식한 손상차손은 후속 기간에 환입하지 아니한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항은 자산손상에서 비한정내용연수 무형자산, 재평가자산, 손상차손 후 상각, 영업권의 환입 금지를 구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비한정내용연수 무형자산은 내용연수에 한계가 없다고 보아 상각하지 않지만 매년 손상검사를 하고 손상징후가 있으면 추가로 검사하는 자산이다.
재평가자산의 손상차손은 그 자산에 쌓여 있는 재평가잉여금 범위까지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처리하고, 초과분은 당기손익으로 처리한다.
손상차손을 인식한 뒤에는 수정된 장부금액에서 잔존가치를 뺀 금액을 남은 내용연수에 걸쳐 배분하므로 이후 감가상각비나 상각비가 다시 계산된다.
영업권 손상차손은 다른 자산과 달리 후속 기간에 환입하지 않는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비한정내용연수 무형자산은 최초 인식한 회계연도 말 전에만 손상검사를 하는 자산이 아니다. 매 회계연도에 최소 1회 손상검사를 하고, 손상징후가 있으면 기간 중에도 추가로 손상검사를 한다. 틀린 표현은 "이후 회계기간에는 손상징후와 관계없이 손상검사를 하지 않는다"이고, 올바르게는 "이후 회계기간에도 매년 손상검사를 하며 손상징후가 있으면 추가 검사한다"이다.

② O
재평가자산에서 손상차손이 발생하면 먼저 해당 자산과 관련해 누적된 재평가잉여금 범위까지 기타포괄손익으로 처리한다. 그 범위를 넘는 부분만 당기손익으로 처리하므로 선지의 설명이 맞다.

③ O
손상차손을 인식하면 자산의 장부금액이 줄어들고, 그 수정된 장부금액에서 잔존가치를 차감한 금액을 남은 내용연수에 걸쳐 체계적으로 배분한다. 따라서 미래 기간의 감가상각비 또는 상각비가 조정된다는 설명은 맞다.

④ O
영업권에 대해 인식한 손상차손은 후속 기간에 경제적 가치가 회복되어도 환입하지 않는다. 영업권 손상은 환입 금지라는 점이 핵심이므로 선지는 옳다.

오답 포인트

①은 비한정내용연수 무형자산이 "상각하지 않는다"는 점을 "손상검사도 하지 않는다"로 바꿔 놓은 함정이다. 상각 여부와 손상검사 여부는 별도 판단 사항이며, 비한정내용연수 자산은 오히려 정기 손상검사가 더 엄격하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자산손상 선지는 먼저 자산 종류를 구분한 뒤 예외를 붙여 판단한다. 비한정내용연수 무형자산과 영업권은 매년 손상검사 대상인지, 영업권은 환입이 금지되는지, 재평가자산은 손상차손의 표시 위치가 어디인지 순서대로 보면 정답이 정리된다.

암기 포인트

비한정내용연수는 비상각이지만 매년 손상검사, 영업권 손상은 환입 금지이다.

NoteBase

문 13.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계약의 각 당사자가 전혀 수행되지 않은 계약에 대해 상대방(들)에게 보상하지 않고 종료할 수 있는 일방적이고 집행 가능한 권리를 갖는다면, 그 계약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다.

② 하나의 계약은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는 여러 약속을 포함한다. 그 재화나 용역들이 구별된다면 약속은 수행의무이고 별도로 회계처리한다.

③ 일반적으로 고객과의 계약에는 기업이 고객에게 이전하기로 약속하는 재화나 용역을 분명히 기재한다. 그러나 고객과의 계약에서 식별되는 수행의무는 계약에 분명히 기재한 재화나 용역에만 한정되지 않을 수 있다.

④ 거래가격은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고 그 대가로 기업이 받을 권리를 갖게 될 것으로 예상하는 금액이며, 제3자를 대신해서 회수한 금액(예: 일부 판매세)도 포함한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고객과의 계약에서 계약의 존재, 수행의무의 식별, 거래가격의 정의를 정확히 구별하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계약의 존재는 전혀 수행되지 않은 계약에서 각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보상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종료할 수 있는 집행 가능한 권리가 있으면 수익기준상 계약으로 보지 않는다는 뜻이다.
수행의무는 고객에게 이전하기로 약속한 구별되는 재화나 용역이며, 계약서에 명시된 약속뿐 아니라 기업의 관행 등으로 묵시적으로 형성된 약속도 포함될 수 있다.
거래가격은 약속한 재화나 용역을 이전한 대가로 기업이 받을 것으로 예상하는 금액이지만, 제3자를 대신하여 회수한 금액은 제외한다.

선지별 해설

1번: O. 전혀 수행되지 않은 계약에서 각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보상하지 않고 종료할 수 있는 일방적이고 집행 가능한 권리를 가지면, 수익인식 기준에서는 그 계약을 존재하는 계약으로 보지 않는다. 계약의 구속력이 실질적으로 없기 때문이다.
2번: O. 하나의 계약 안에 여러 약속이 들어 있어도 각 재화나 용역이 구별되면 각각이 수행의무가 된다. 따라서 구별되는 약속은 별도의 수행의무로 식별하여 회계처리한다.
3번: O. 수행의무는 계약서에 적힌 재화나 용역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기업의 통상적 영업관행, 공표된 정책, 구체적 진술로 고객에게 이전을 약속한 재화나 용역도 수행의무가 될 수 있다.
4번: X. 틀린 부분은 "제3자를 대신해서 회수한 금액(예: 일부 판매세)도 포함한다"이다. 올바르게는 거래가격은 고객에게서 받을 것으로 예상하는 대가 중 제3자를 대신하여 회수한 금액은 제외한 금액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거래가격 정의의 앞부분만 외우고 제외항목을 놓치면 4번을 맞는 문장처럼 보기 쉽다. 또한 수행의무를 계약서에 적힌 문구로만 좁게 이해하면 3번을 틀리기 쉽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수익인식 기준 문장은 계약의 존재, 수행의무, 거래가격의 세 축으로 나누어 판단한다. 거래가격 문장에 판매세나 제3자 대신 회수한 금액이 보이면 포함이 아니라 제외 항목인지 먼저 확인한다.

암기 포인트

거래가격은 받을 대가이고, 제3자 대신 걷은 돈은 아니다. 수행의무는 명시적 약속뿐 아니라 묵시적 약속까지 포함한다.

NoteBase

문 14. (주)한국이 20×1년 중 다음의 위탁약정에서 인식한 영업이익이 ₩40,000일 때, 판매한 적송품의 단위당 원가는?

○ 12월 1일: 위탁자인 (주)한국은 수탁자인 (주)대한과 상품 위탁약정을 체결
— 위탁판매 수수료는 매출액의 10%
— 수탁자의 판매운임은 위탁자 부담
— 이전된 상품 통제권은 (주)한국이 계속 보유
○ 12월 10일: (주)한국은 (주)대한에 상품 1,000개를 적송함
○ 12월 20일: (주)대한은 최종소비자에게 상품 600개를 개당 ₩2,500에 판매하고, 판매운임 ₩50,000과 위탁판매 수수료를 판매금액에서 공제한 후 (주)한국에 송금

① ₩1,260
② ₩2,100
③ ₩2,183
④ ₩2,200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위탁판매에서 위탁자가 인식하는 매출액, 위탁수수료, 위탁자 부담 판매운임, 영업이익의 관계를 이용해 판매된 적송품의 단위당 원가를 구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주어진 값: 12월 20일에 600개를 개당 2,500원에 판매하였다.
위탁수수료는 매출액의 10%이다.
판매운임 50,000원은 위탁자 부담이다.
20×1년에 인식한 영업이익은 40,000원이다.
구해야 할 값: 판매된 적송품 600개의 단위당 원가이다.
주의할 조건: 12월 10일에 적송한 1,000개 전부가 아니라 실제 판매된 600개만 원가 계산 대상이다.

사용할 공식

위탁판매에서 위탁자의 영업이익은 매출액 - 위탁수수료 - 위탁자 부담 비용 - 판매된 적송품원가이다.
이 문제에서는 판매된 적송품원가 = 매출액 - 위탁수수료 - 판매운임 - 영업이익으로 역산한다.
이 공식을 쓰는 이유는 통제권을 계속 보유한 상태에서 최종소비자에게 판매된 시점의 성과만 당기손익에 반영하기 때문이다.

NoteBase

계산 과정

1. 매출액은 600개 × 2,500원 = 1,500,000원이다.
2. 위탁수수료는 1,500,000원 × 10% = 150,000원이다.
3. 판매된 적송품 총원가는 1,500,000원 - 150,000원 - 50,000원 - 40,000원 = 1,260,000원이다.
4. 단위당 원가는 1,260,000원 ÷ 600개 = 2,100원이다.

선지 판단

1번 X: 1,260원은 판매된 적송품 총원가 1,260,000원을 적송수량 1,000개 전체로 잘못 나눈 값이다. 문제는 이미 판매된 600개의 단위당 원가를 묻으므로 올바르게는 2,100원이다.
2번 O: 매출액 1,500,000원에서 위탁수수료 150,000원, 판매운임 50,000원, 영업이익 40,000원을 차감하면 판매된 적송품 총원가가 1,260,000원이고, 이를 600개로 나누면 2,100원이다.
3번 X: 2,183원은 판매운임 50,000원을 차감하지 않고 1,500,000원 - 150,000원 - 40,000원 = 1,310,000원으로 계산한 뒤 600개로 나눈 값에 가깝다. 판매운임은 위탁자 부담이므로 함께 차감해야 하며 올바르게는 2,100원이다.
4번 X: 2,200원은 수수료, 판매운임, 영업이익의 연결을 끝까지 반영하지 못한 오답이다. 위탁수수료 150,000원과 판매운임 50,000원, 영업이익 40,000원을 모두 반영한 총원가는 1,260,000원이므로 올바르게는 2,100원이다.

오답 포인트

위탁판매에서는 적송 시점과 최종 판매 시점을 구분해야 한다. 이 문제의 함정은 1,000개를 보냈다는 사실 때문에 전체 적송수량으로 나누거나, 위탁자 부담 판매운임 50,000원을 빠뜨리는 데 있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위탁판매 계산형 문제는 실제 판매수량을 먼저 확인하고, 매출액에서 위탁수수료와 위탁자 부담 비용을 차감한 뒤 영업이익까지 반영하여 판매된 적송품원가를 역산하면 된다. 마지막에 그 총원가를 실제 판매수량으로 나누면 단위당 원가가 된다.

암기 포인트

위탁판매 영업이익은 매출액 - 위탁수수료 - 위탁자 부담 비용 - 판매된 적송품원가의 구조로 연결된다.

NoteBase

문 15. 중앙부처 A의 20×1년 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재정운영표상 재정운영순원가는?

◯ 프로그램총원가 ₩ 35,000과 프로그램수익 ₩ 15,000이 발생하였다.
◯ 행정 운영을 위해 발생한 인건비 ₩ 7,000과 경비 ₩ 3,000은 모두 관리운영비로 인식하였다.
◯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이 없는 이자수익 ₩ 6,000과 자산처분손실 ₩ 7,000이 발생하였다.
◯ 제재금수익은 ₩ 10,000, 부담금수익은 ₩ 5,000이다.

① ₩ 16,000
② ₩ 20,000
③ ₩ 31,000
④ ₩ 35,000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재정운영순원가를 구할 때 프로그램순원가에 관리운영비와 비배분항목을 반영하고, 일반수익은 제외하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주어진 값은 프로그램총원가 35,000, 프로그램수익 15,000, 관리운영비 10,000(인건비 7,000 + 경비 3,000), 비배분수익 6,000(이자수익), 비배분비용 7,000(자산처분손실)이다.
제재금수익 10,000과 부담금수익 5,000은 일반수익이다.
구해야 할 값은 재정운영순원가이다.

사용할 공식

$N = (C - R) + M + E - I$
여기서 N은 재정운영순원가, C는 프로그램총원가, R은 프로그램수익, M은 관리운영비, E는 비배분비용, I는 비배분수익이다.
이 공식을 쓰는 이유는 재정운영순원가가 프로그램순원가에 관리운영비와 비배분항목을 가감하여 계산되고, 제재금수익·부담금수익 같은 일반수익은 재정운영순원가가 아니라 재정운영결과 단계에서 반영되기 때문이다.

NoteBase

계산 과정

1. 프로그램순원가는 35,000 - 15,000 = 20,000이다.
2. 관리운영비는 7,000 + 3,000 = 10,000이다.
3. 비배분비용은 7,000이고 비배분수익은 6,000이다.
4. 따라서 재정운영순원가는 20,000 + 10,000 + 7,000 - 6,000 = 31,000이다.
5. 제재금수익 10,000과 부담금수익 5,000은 일반수익이므로 이 단계에서는 차감하지 않는다.

선지별 해설

① X: 16,000은 재정운영순원가 31,000에서 제재금수익과 부담금수익 15,000을 추가로 차감할 때 나오는 값이다. 틀린 표현은 일반수익을 재정운영순원가 계산에 넣는다는 점이다. 올바르게는 제재금수익과 부담금수익은 재정운영결과에서 반영하고, 재정운영순원가는 31,000이다.
② X: 20,000은 프로그램총원가에서 프로그램수익만 차감한 프로그램순원가이다. 틀린 표현은 관리운영비와 비배분항목을 누락한 점이다. 올바르게는 프로그램순원가 20,000에 관리운영비 10,000과 비배분비용 7,000을 더하고 비배분수익 6,000을 차감하여 31,000으로 본다.
③ O: 프로그램순원가 20,000에 관리운영비 10,000과 자산처분손실 7,000을 더하고, 프로그램과 무관한 이자수익 6,000을 차감하면 31,000이 된다. 제재금수익과 부담금수익은 일반수익이므로 여기 포함되지 않는다.
④ X: 35,000은 프로그램총원가만 본 값이다. 틀린 표현은 프로그램수익, 관리운영비, 비배분항목의 반영을 모두 생략한 점이다. 올바르게는 프로그램총원가를 그대로 쓰지 않고 관련 수익과 비용 분류를 반영하여 31,000을 계산한다.

오답 포인트

함정은 제재금수익·부담금수익을 재정운영순원가에서 차감할지 여부와, 프로그램순원가와 재정운영순원가를 같은 개념으로 보는 착각이다. 이 문항에서는 일반수익을 빼면 16,000이 되어 ①로 흔들리기 쉽고, 관리운영비와 비배분항목을 누락하면 ②로 흔들리기 쉽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정부회계 재정운영표 문제는 먼저 프로그램순원가를 계산하고, 그다음 관리운영비와 비배분비용·비배분수익을 반영한 뒤, 제재금수익·부담금수익 같은 일반수익은 재정운영순원가 단계에서 제외하는 순서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재정운영순원가 = 프로그램순원가 + 관리운영비 + 비배분비용 - 비배분수익, 일반수익은 제외이다.

NoteBase

문 16. (주)한국의 기계장치와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주)한국이 20×2년 말 인식할 손상차손환입액은? (단, 자산의 회수가능액 변동은 기계장치의 손상 혹은 그 회복에 따른 것이라 가정하고, 감가상각은 월할 계산한다)

◯ 20×1년 초 기계장치 구입 시 지출내역
- 구입가격: ₩450,000 - 설치비: ₩40,000
- 운반비: ₩60,000 - 시제품 순매각금액: ₩50,000
- 정상 작동 여부를 시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원가: ₩50,000
◯ 기계장치는 20×1년 7월 초부터 정상적으로 사용가능(정액법 상각, 내용연수 4년, 잔존가치 ₩0, 원가모형 적용)
◯ ㈜한국은 20×1년 말에 기계장치에 대해서 손상차손이 발생하였고, 20×2년 말에 손상차손환입이 발생하였다고 판단함
◯ 연도별 회수가능액
20×1년 말: ₩420,000
20×2년 말: ₩370,000

① ₩12,500
② ₩17,500
③ ₩70,000
④ ₩75,000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유형자산 취득원가에 포함되는 항목, 손상차손 인식 후 감가상각, 그리고 손상차손환입 한도를 함께 적용해 20×2년 말 환입액을 구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주어진 값: 구입가격 450,000원, 설치비 40,000원, 운반비 60,000원, 시험원가 50,000원, 시제품 순매각금액 50,000원이다.
구해야 할 값: 20×2년 말 손상차손환입액이다.
주의할 조건: 시제품 순매각금액은 기계장치 원가에서 차감하지 않고 당기손익으로 처리하며, 감가상각은 정액법으로 월할 계산한다.

NoteBase

사용할 공식

취득원가는 $450{,}000 + 40{,}000 + 60{,}000 + 50{,}000 = 600{,}000$이다.
환입액은 (회수가능액 - 환입 전 장부금액, 손상 미인식 가정 장부금액 - 환입 전 장부금액)으로 구한다.
이 공식을 쓰는 이유는 손상차손환입이 회수가능액까지는 가능하지만, 손상을 인식하지 않았더라면 존재했을 장부금액을 초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

계산 과정

1. 기계장치 취득원가는 600,000원이다.
2. 20×1년 감가상각은 $600{,}000 \times \frac{6}{48} = 75{,}000$이므로 20×1년 말 손상 인식 전 장부금액은 525,000원이다.
3. 20×1년 말 회수가능액이 420,000원이므로 손상차손은 105,000원이다.
4. 손상 인식 후 남은 내용연수는 42개월이므로 20×2년 감가상각은 $420{,}000 \times \frac{12}{42} = 120{,}000$이다. 따라서 20×2년 말 환입 전 장부금액은 300,000원이다.
5. 20×2년 말 회수가능액 370,000원 기준 환입 후보액은 $370{,}000 - 300{,}000 = 70{,}000$이다.
6. 손상을 인식하지 않았다고 가정한 20×2년 말 장부금액은 $600{,}000 - 75{,}000 - 150{,}000 = 375{,}000$이므로 환입 한도는 $375{,}000 - 300{,}000 = 75{,}000$이다.
7. 실제 환입액은 후보액 70,000원과 한도 75,000원 중 작은 금액인 70,000원이다.

선지 판단

1번 X: 12,500원은 20×2년 말 회수가능액 370,000원과 환입 전 장부금액 300,000원의 차이를 반영하지 못한 값이다. 올바르게는 손상차손환입액이 70,000원이다.
2번 X: 17,500원은 취득원가와 후속 감가상각의 출발점을 잘못 잡은 값이다. 시제품 순매각금액을 자산원가에서 차감하지 않으므로 올바르게는 환입액이 70,000원이다.
3번 O: 20×2년 말 환입 전 장부금액은 300,000원이고 회수가능액은 370,000원이므로 환입 후보액은 70,000원이다. 이 금액은 환입 한도 75,000원 이내이므로 정답이 된다.
4번 X: 75,000원은 손상을 인식하지 않았을 경우의 장부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환입 한도일 뿐 실제 환입액이 아니다. 올바르게는 회수가능액까지 회복시키는 70,000원을 환입한다.

오답 포인트

시제품 순매각금액 50,000원을 기계장치 원가에서 차감하는 것으로 처리하거나, 환입 한도 75,000원만 보고 실제 회수가능액 기준 후보액 70,000원을 확인하지 않으면 오답이 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손상차손환입 문제는 취득원가 확정, 손상 전후 장부금액 계산, 손상 후 감가상각 반영, 회수가능액 기준 환입 후보액 계산, 손상 미인식 가정 장부금액 한도 비교의 순서로 판단한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환입액은 회수가능액까지 계산하되, 최종 한도는 손상 미인식 장부금액까지이다.

NoteBase

문 17. 다음은 (주)한국의 20×1년 결산수정 자료이다.

(주)한국의 결산수정분개가 20×1년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단, 기간은 월할 계산한다)

◯ 6월 초 창고를 임대하면서 수령한 연간 임대료 ₩12,000을 전액 부채로 인식하였다.
◯ 10월 초 건물에 대한 연간 화재보험료 ₩24,000을 현금지급하면서 전액 비용으로 인식하였다.
◯ 당해 연도에 발생한 건물 임차료 ₩10,000과 급여 ₩20,000을 장부에 반영하지 않았다.

① ₩5,000 감소
② ₩6,000 감소
③ ₩28,000 감소
④ ₩31,000 감소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선수수익, 선급비용, 미지급비용의 결산수정이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순효과를 계산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 6월 초 수령한 연간 창고 임대료 ₩12,000은 전액 부채로 처리되어 있다.
- 10월 초 지급한 연간 화재보험료 ₩24,000은 전액 비용으로 처리되어 있다.
- 당해 연도 건물 임차료 ₩10,000과 급여 ₩20,000은 미반영 상태이다.
- 기간은 월할 계산이므로 연말까지 경과월수를 기준으로 수정한다.

사용할 공식

당기순이익 영향 = 당기수익 증가 + 과대계상 비용 환입 - 누락 비용 인식
선수수익은 경과한 기간만 수익으로 돌리고, 선급비용은 미경과분을 자산으로 대체하며, 누락된 발생비용은 당기비용으로 추가 인식하기 때문이다.

계산 과정

1. 6월 초부터 12월 말까지는 7개월이 경과하므로 창고 임대료의 당기수익은 ₩7,000이다. 전액을 부채로 잡아두었으므로 수정 시 수익이 ₩7,000 증가한다.
2. 10월 초부터 12월 말까지는 3개월이 경과하므로 보험료의 당기비용은 ₩6,000이다. 이미 ₩24,000 전액을 비용 처리했으므로 미경과분 ₩18,000을 선급보험료로 돌리면 비용이 ₩18,000 감소한다.
3. 누락된 건물 임차료 ₩10,000과 급여 ₩20,000을 인식하면 비용이 ₩30,000 증가한다.
4. 순효과는 ₩7,000 + ₩18,000 - ₩30,000 = ₩5,000 감소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 결산수정의 순효과가 당기순이익 ₩5,000 감소이므로 옳다.

② X
- 틀린 표현은 '₩6,000 감소' 부분이다. 올바르게는 '₩5,000 감소'이다.
- 이 값은 6월 초 선수임대료를 7개월이 아니라 6개월로 잘못 보아 수익 증가를 ₩6,000으로 계산할 때 나오기 쉽다.

③ X
- 틀린 표현은 '₩28,000 감소' 부분이다. 올바르게는 '₩5,000 감소'이다.
- 보험료의 미경과분 ₩18,000 환입과 선수임대료의 경과분 ₩7,000 수익 인식을 반영하면 감소액이 이렇게 크게 될 수 없다.

④ X
- 틀린 표현은 '₩31,000 감소' 부분이다. 올바르게는 '₩5,000 감소'이다.
- 누락비용 ₩30,000만 보고 판단하거나, 수익 증가와 비용 환입이라는 반대 방향 수정효과를 함께 합산하지 않으면 이런 오답에 걸리기 쉽다.

오답 포인트

결산수정 문제에서는 금액보다 먼저 방향을 잡아야 한다. 선수수익은 수익 증가, 선급비용 수정은 비용 감소, 누락된 발생비용은 비용 증가로 작용한다. 또한 6월 초는 연말까지 7개월, 10월 초는 연말까지 3개월이라는 월수 계산을 틀리기 쉽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각 항목을 선수수익, 선급비용, 미지급비용으로 먼저 분류한 뒤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방향을 수익 증가, 비용 감소, 비용 증가로 나누어 부호까지 붙여 합산하면 된다.

암기 포인트

선수수익은 경과분만 수익, 선급비용은 미경과분만 자산, 누락 발생비용은 전액 비용으로 잡는다.

NoteBase

문 18.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상 자산 및 부채의 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재정상태표에 기재하는 자산은 자산의 진부화, 물리적인 손상 및 시장가치의 급격한 하락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해당 자산의 회수가능가액이 장부가액에 미달하고 그 미달액이 중요한 경우에는 이를 장부가액에서 직접 차감하여 회수가능가액으로 조정하고 감액내역을 주석으로 공시한다. 이 경우 회수가능가액은 해당 자산의 순 실현가능액과 사용가치 중 작은 금액으로 한다.

② 미수세금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고 이를 미수세금 금액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하며, 대손충당금의 내역은 주석으로 공시한다.

③ 일반유형자산과 주민편의시설 중 상각대상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은 정액법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 일반유형자산과 주민편의시설에 대한 사용수익권은 해당 자산의 차감항목으로 표시한다.

④ 지방채증권의 액면가액과 발행가액의 차이는 지방채할인 또는 할증 발행차금으로 하고, 할인 또는 할증 발행차금은 증권 발행시부터 최종 상환시까지의 기간에 유효이자율 등으로 상각 또는 환입하고 그 상각액 또는 환입액은 지방채증권에 대한 이자비용에 더하거나 뺀다.

정답 1번

쟁점

이 문제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상 자산손상, 미수세금 평가, 사용수익권 표시, 지방채증권 발행차금 처리 기준을 정확히 구별하는 문제이다.

용어 풀이

회수가능가액은 자산을 계속 사용하거나 처분하여 회수할 수 있는 금액으로, 이 규칙에서는 순 실현가능액과 사용가치 중 큰 금액이다.
사용수익권은 일반유형자산이나 주민편의시설과 관련하여 해당 자산에서 차감하여 표시하는 권리이다.

핵심 구분

자산손상에서는 장부가액을 회수가능가액으로 낮추되, 회수가능가액 자체는 순 실현가능액과 사용가치 중 큰 금액으로 본다.
반면 대손충당금과 사용수익권은 자산의 차감항목으로 표시하고, 지방채 할인·할증 발행차금은 유효이자율 등에 따라 기간배분하여 이자비용에 가감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1번: X. 손상차손이 중요한 경우 장부가액을 직접 차감하고 감액내역을 주석으로 공시하는 부분은 맞다. 다만 '회수가능가액은 해당 자산의 순 실현가능액과 사용가치 중 작은 금액'이라는 부분이 틀리다. 올바르게는 순 실현가능액과 사용가치 중 큰 금액이다.
2번: O. 미수세금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으로 평가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고, 이를 미수세금 금액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하며, 대손충당금 내역은 주석으로 공시한다.
3번: O. 일반유형자산과 주민편의시설 중 상각대상 자산의 감가상각은 정액법이 원칙이고, 해당 자산에 대한 사용수익권은 차감항목으로 표시한다.
4번: O. 지방채증권의 액면가액과 발행가액의 차이는 할인 또는 할증 발행차금으로 처리하고, 발행일부터 최종 상환일까지 유효이자율 등으로 상각 또는 환입하여 이자비용에 더하거나 뺀다.

오답 포인트

1번은 손상 발생 시 장부가액을 감액한다는 앞부분이 맞아서 끝 문장의 비교기준을 놓치기 쉽다. 이 규칙의 함정은 '작은 금액'이 아니라 '큰 금액'이라는 점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자산 손상 선지는 먼저 장부가액과 비교하는 대상이 무엇인지 본 다음, 회수가능가액의 정의가 순 실현가능액과 사용가치 중 큰 금액인지까지 확인하면 된다. 별도 차감표시 항목인지, 기간배분 항목인지는 대손충당금·사용수익권·할인발행차금으로 나누어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회수가능가액은 큰 금액, 대손충당금과 사용수익권은 차감표시, 할인·할증 발행차금은 유효이자율로 기간배분이다.

NoteBase

문 19.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상 수익의 인식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신고·납부하는 방식의 국세는 납세의무자가 세액을 자진신고하는 때에 수익으로 인식한다.

② 정부가 부과하는 방식의 국세는 국가가 고지하는 때에 수익으로 인식한다.

③ 원천징수하는 국세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한 금액을 신고·납부하는 때에 수익으로 인식한다.

④ 분납이 가능한 국세는 징수할 세금이 납부된 때에 그 납부된 세액을 수익으로 인식한다.

정답 4번

쟁점

이 문제는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상 국세 유형별 수익 인식시점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용어 풀이

비교환수익은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이 발생하는 수익이다.
국세수익은 실제 현금 수납 시점이 아니라 각 유형별로 정한 인식기준 시점에 발생주의로 인식한다.

핵심 구분

신고·납부 방식의 국세는 자진신고 시점에, 정부가 부과하는 방식의 국세는 국가의 고지 시점에, 원천징수하는 국세는 원천징수의무자의 신고·납부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한다.
연부연납 또는 분납이 가능한 국세는 실제로 나누어 납부한 때마다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징수할 세금이 확정된 때에 납부할 세액 전체를 수익으로 인식한다.

선지별 해설

1번 O: 신고·납부 방식의 국세는 납세의무자가 세액을 자진신고하는 때에 수익으로 인식한다. 신고 시점이 인식기준이라는 점을 정확히 적은 선지이다.
2번 O: 정부가 부과하는 방식의 국세는 국가가 고지하는 때에 수익으로 인식한다. 자진신고가 아니라 국가의 고지행위가 기준이라는 점이 맞다.
3번 O: 원천징수하는 국세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한 금액을 신고·납부하는 때에 수익으로 인식한다. 원천징수 사실만으로 바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신고·납부 시점이 기준이다.
4번 X: 분납이 가능한 국세의 기준을 실제 납부 시점으로 적은 부분이 틀리다. 틀린 표현은 '징수할 세금이 납부된 때에 그 납부된 세액을 수익으로 인식한다'이다. 올바른 표현은 '징수할 세금이 확정된 때에 그 납부할 세액 전체를 수익으로 인식한다'이다.

오답 포인트

4번은 현금이 들어온 만큼 수익을 인식하는 것처럼 적어 발생주의와 현금주의를 섞어 놓은 함정이다. 분납 가능 국세는 납부가 여러 번 이루어져도 인식기준은 세액 확정 시점이라는 점을 놓치면 틀리기 쉽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국세수익 인식 문제는 먼저 세금 유형을 신고·납부형, 고지형, 원천징수형, 연부연납·분납형으로 나눈다. 그다음 자진신고, 국가 고지, 원천징수의무자의 신고·납부, 세액 확정 중 어느 사건이 인식시점인지 대응시키면 된다.

암기 포인트

신고는 자진신고, 고지는 국가고지, 원천은 신고·납부, 분납은 납부가 아니라 확정 시점 전체 인식이다.

NoteBase

문 20. 다음은 (주)한국의 무형자산 관련 자료이다. (주)한국의 20×2년 무형자산 관련 회계처리가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 20×1년 초 무형자산을 ₩10,000,000에 취득(정액법 상각, 내용연수 10년, 잔존가치 ₩0, 재평가모형 적용)
◯ 연도별 공정가치(활성시장이 존재함)

20×1년 말	20×2년 말
₩7,200,000	₩6,000,000

① ₩400,000 감소
② ₩800,000 감소
③ ₩1,200,000 감소
④ ₩1,800,000 감소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재평가모형을 적용한 무형자산의 20×2년 상각비와 재평가감소를 합산하여 당기순이익 영향을 구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주어진 값: 20×1년 초 취득원가 10,000,000원, 내용연수 10년, 잔존가치 0원, 정액법 상각, 재평가모형 적용이다.
20×1년 말 공정가치는 7,200,000원이고 20×2년 말 공정가치는 6,000,000원이다.
구해야 할 값: 20×2년 관련 회계처리가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순감소액이다.
주의할 조건: 20×1년 말 재평가 후 장부금액을 기준으로 20×2년 상각비를 다시 계산해야 한다.

사용할 공식

상각비는 재평가 후 장부금액 ÷ 잔존 내용연수로 계산한다.
재평가감소손실은 재평가 직전 장부금액 - 재평가 후 공정가치이다.
이 공식을 쓰는 이유는 재평가모형에서는 재평가일 이후의 장부금액을 남은 내용연수에 걸쳐 상각하고, 재평가 시점의 하락분은 별도로 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에 반영하기 때문이다.

NoteBase

계산 과정

1. 20×1년 상각 전 장부금액은 $10,000,000 - 1,000,000 = 9,000,000$원이다.
2. 20×1년 말 공정가치가 7,200,000원이므로 20×1년 말 재평가감소는 $9,000,000 - 7,200,000 = 1,800,000$원이다. 이 금액은 20×1년 손익에 반영되고 20×2년 계산의 출발 장부금액은 7,200,000원이다.
3. 20×2년 초 기준 잔존 내용연수는 9년이므로 20×2년 상각비는 $7,200,000 \div 9 = 800,000$원이다.
4. 20×2년 말 재평가 직전 장부금액은 $7,200,000 - 800,000 = 6,400,000$원이다.
5. 20×2년 말 공정가치가 6,000,000원이므로 20×2년 재평가감소는 $6,400,000 - 6,000,000 = 400,000$원이다.
6. 20×2년 당기순이익 감소액은 상각비 800,000원과 재평가감소 400,000원을 합한 1,200,000원이다.

선지 판단

1번 X: 400,000원 감소는 20×2년 말 재평가감소만 반영한 값이라서 틀리다. 20×2년에는 상각비 800,000원도 함께 비용 처리되므로 올바르게는 1,200,000원 감소이다.
2번 X: 800,000원 감소는 20×2년 상각비만 반영한 값이라서 틀리다. 연말 공정가치 하락에 따른 재평가감소 400,000원을 추가해야 하므로 올바르게는 1,200,000원 감소이다.
3번 O: 20×2년 상각비 800,000원과 재평가감소 400,000원을 합하면 당기순이익은 1,200,000원 감소한다.
4번 X: 1,800,000원 감소는 20×1년 말 재평가감소 금액을 20×2년 영향으로 잘못 가져온 값이라서 틀리다. 20×2년에 반영되는 금액은 상각비 800,000원과 재평가감소 400,000원의 합계인 1,200,000원 감소이다.

오답 포인트

이 문항의 함정은 20×1년 말 재평가감소 1,800,000원과 20×2년 말 재평가감소 400,000원을 혼동하는 데 있다. 또한 재평가 후 장부금액 7,200,000원을 기준으로 남은 9년 동안 상각해야 하는데, 상각비와 재평가감소 중 하나만 반영하면 400,000원이나 800,000원 오답으로 흐른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재평가모형 계산형 문제는 재평가 직전 장부금액을 먼저 구하고, 재평가 후 장부금액으로 남은 내용연수 상각비를 계산한 뒤, 해당 연도 재평가손익까지 더해 당기손익 영향을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재평가모형은 재평가 후 장부금액으로 다시 상각하고, 당기손익 영향은 해당 연도 상각비와 재평가손익을 함께 본다.

NoteBase

문 21. 단일 제품을 생산 및 판매하는 (주)한국의 원가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전부원가계산하에서 20×3년의 영업이익은?

◯ 20×1년 고정제조간접원가: ₩300,000
◯ 20×1년 전부원가계산하의 영업이익: ₩600,000

○ 20×1 ~ 20×3년 제품 현황

(단위: 개)

구 분	20×1년	20×2년	20×3년
기초재고	0	20,000	10,000
당기 생산	60,000	30,000	50,000
당기 판매	40,000	40,000	40,000
기말재고	20,000	10,000	20,000

◯ 20×1 ~ 20×3년 판매가격 및 원가의 변동 없음
◯ 재공품은 없으며, 원가흐름은 선입선출법 적용

① ₩480,000
② ₩500,000
③ ₩520,000
④ ₩540,000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전부원가계산 영업이익과 변동원가계산 영업이익의 차이가 재고에 포함된 고정제조간접원가의 증감으로 결정된다는 점을 묻는다.

NoteBase

조건 정리

20×1년 고정제조간접원가 총액은 ₩300,000이다.
20×1년 전부원가계산 영업이익은 ₩600,000이다.
판매량은 20×1년부터 20×3년까지 매년 40,000개로 같고, 판매가격과 원가의 변동이 없다.
생산량은 20×1년 60,000개, 20×2년 30,000개, 20×3년 50,000개이므로 각 연도의 단위당 고정제조간접원가가 달라진다.

사용할 공식

전부원가계산 영업이익 = 변동원가계산 영업이익 + 기말재고에 포함된 고정제조간접원가 - 기초재고에 포함된 고정제조간접원가
이 공식을 쓰는 이유는 판매량이 매년 같고 판매가격과 원가가 변하지 않으면 변동원가계산 영업이익은 일정하고, 전부원가계산 영업이익만 재고에 이연되거나 환입되는 고정제조간접원가만큼 달라지기 때문이다.

계산 과정

1. 20×1년 단위당 고정제조간접원가는 ₩300,000 ÷ 60,000개 = ₩5이다.
2. 20×1년 기말재고 20,000개에 이연된 고정제조간접원가는 20,000개 × ₩5 = ₩100,000이므로, 20×1년 변동원가계산 영업이익은 ₩600,000 - ₩100,000 = ₩500,000이다.
3. 20×2년 단위당 고정제조간접원가는 ₩300,000 ÷ 30,000개 = ₩10이다. 기초재고 포함 고정제조간접원가와 기말재고 포함 고정제조간접원가가 각각 ₩100,000으로 같으므로 20×2년 전부원가계산 영업이익도 ₩500,000이다.
4. 20×3년 단위당 고정제조간접원가는 ₩300,000 ÷ 50,000개 = ₩6이다. 기초재고 포함 고정제조간접원가는 10,000개 × ₩10 = ₩100,000, 기말재고 포함 고정제조간접원가는 20,000개 × ₩6 = ₩120,000이다.
5. 따라서 20×3년 전부원가계산 영업이익은 ₩500,000 + ₩120,000 - ₩100,000 = ₩520,000이다.

선지 판단

1번 X: ₩480,000은 20×3년에 재고가 10,000개 증가하여 고정제조간접원가가 추가로 ₩20,000 이연된 효과의 부호를 반대로 본 값이다. 올바르게는 20×3년 영업이익이 ₩520,000이다.
2번 X: ₩500,000은 재고에 포함된 고정제조간접원가의 순증가 ₩20,000을 반영하지 않은 값이다. 올바르게는 20×3년 영업이익이 ₩520,000이다.
3번 O: 20×3년에는 기말재고 포함 고정제조간접원가 ₩120,000이 기초재고 포함 고정제조간접원가 ₩100,000보다 ₩20,000 크므로 전부원가계산 영업이익은 변동원가계산 영업이익 ₩500,000보다 ₩20,000 큰 ₩520,000이다.
4번 X: ₩540,000은 재고 증가 효과를 ₩40,000으로 과대계산한 값이다. 올바르게는 기말재고 포함액과 기초재고 포함액의 차이만 반영하므로 20×3년 영업이익은 ₩520,000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전부원가계산에서는 재고가 늘면 고정제조간접원가 일부가 비용에서 빠져 영업이익이 증가하고, 재고가 줄면 반대로 과거에 이연된 금액이 환입되어 영업이익이 감소한다. 이 문제에서는 20×3년 기초재고와 기말재고에 들어 있는 고정제조간접원가를 비교해야 하는데, 단순히 재고수량 증감만 보거나 20×1년 금액을 그대로 끌고 오면 틀리기 쉽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전부원가계산 이익 문제는 먼저 변동원가계산 영업이익의 기준값을 잡고, 그다음 각 연도의 단위당 고정제조간접원가를 계산한 뒤 기말재고 포함액에서 기초재고 포함액을 차감해 재고효과를 반영하는 순서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전부원가계산 영업이익 = 변동원가계산 영업이익 + 기말재고 고정제조간접원가 - 기초재고 고정제조간접원가이다.

NoteBase

문 22. (주)한국은 표준원가계산을 적용하고 있으며, 직접노무원가와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주)한국의 직접노무원가 임률차이는?

직접노무원가 시간당 실제 임률 ₩980
직접노무원가 시간당 표준 임률 ₩1,000
제품 단위당 표준직접노무시간 2시간
제품 실제 생산량 800 단위
직접노무원가 능률차이 ₩200,000 유리

① ₩16,000 불리한 차이
② ₩16,000 유리한 차이
③ ₩28,000 불리한 차이
④ ₩28,000 유리한 차이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직접노무원가 능률차이로 실제작업시간을 역산한 뒤 직접노무원가 임률차이를 구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조건 정리

주어진 값: 직접노무원가 시간당 실제 임률 980원, 시간당 표준 임률 1,000원, 제품 단위당 표준직접노무시간 2시간, 실제 생산량 800단위, 직접노무원가 능률차이 ₩200,000 유리
구해야 할 값: 직접노무원가 임률차이
주의할 조건: 능률차이로 실제작업시간을 먼저 구한 뒤 그 실제작업시간으로 임률차이를 계산해야 한다.

사용할 공식

직접노무원가 능률차이 = $SR \times (AH - SH)$
직접노무원가 임률차이 = $AH \times (AR - SR)$
이 공식을 쓰는 이유: 능률차이는 실제작업시간과 표준작업시간의 차이를 표준임률로 평가한 값이고, 임률차이는 실제작업시간 동안 실제임률과 표준임률의 차이를 계산한 값이기 때문이다.

NoteBase

계산 과정

1. 표준작업시간 SH는 $2 \times 800 = 1,600$시간이다.
2. 능률차이가 ₩200,000 유리한 차이이므로 $1,000 \times (AH - 1,600) = -200,000$이다. 따라서 $AH - 1,600 = -200$이므로 실제작업시간 AH는 1,400시간이다.
3. 임률차이는 $1,400 \times (980 - 1,000) = -28,000$이다. 음수이므로 직접노무원가 임률차이는 ₩28,000 유리한 차이이다.

선지 판단

1번: X. 계산 결과 임률차이는 ₩28,000 유리한 차이이다. 1번의 '₩16,000 불리한 차이'는 금액과 방향이 모두 틀렸다. 실제임률 980원이 표준임률 1,000원보다 낮으므로 불리한 차이가 될 수 없고, 실제작업시간 1,400시간을 곱해야 하므로 금액도 16,000원이 아니다. 올바르게는 '₩28,000 유리한 차이'이다.
2번: X. 방향은 유리라는 점만 맞고 금액이 틀렸다. 임률차이는 실제작업시간 1,400시간 전체에 대해 계산하므로 $1,400 \times 20 = 28,000$이 된다. '₩16,000 유리한 차이'가 아니라 '₩28,000 유리한 차이'가 맞다.
3번: X. 금액 28,000원은 맞지만 방향이 틀렸다. 실제임률이 표준임률보다 20원 낮으므로 임률차이는 원가 절감 효과가 있는 유리한 차이이다. '₩28,000 불리한 차이'가 아니라 '₩28,000 유리한 차이'가 맞다.
4번: O. 실제작업시간은 1,400시간이고 시간당 임률 차이는 $980 - 1,000 = -20$원이다. 따라서 임률차이는 $1,400 \times -20 = -28,000$이므로 ₩28,000 유리한 차이가 된다.

오답 포인트

능률차이와 임률차이에 들어가는 시간 기준을 섞으면 틀린다. 능률차이로 실제작업시간을 먼저 구하지 않고 표준작업시간 1,600시간이나 실제생산량 800단위를 바로 곱하면 금액이 잘못 나오고, 실제임률이 표준임률보다 낮다는 사실을 놓치면 유리·불리 방향도 뒤집힌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노무차이 문제는 먼저 SH를 구하고, 주어진 차이 항목으로 AH 또는 필요한 값을 역산한 다음, 임률차이인지 능률차이인지에 맞는 공식을 적용해 금액과 유리·불리 방향을 함께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능률차이는 $SR \times (AH - SH)$, 임률차이는 $AH \times (AR - SR)$이며, 실제임률이 표준임률보다 낮으면 임률차이는 유리한 차이가 된다.

NoteBase

문 23. (주)한국의 20×1년 매출액은 ₩500,000, 총고정원가는 ₩100,000, 공헌이익률은 40%, 법인세율은 30%일 때, 옳지 않은 것은?

① 총변동원가는 ₩300,000이다.

② 영업레버리지도는 2.5이다.

③ 세후이익은 ₩70,000이다.

④ 안전한계율은 50%이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공헌이익률로 공헌이익과 손익분기점매출액을 구한 뒤 총변동원가, 영업레버리지도, 세후이익, 안전한계율을 연결해 판단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주어진 값:
매출액 500,000원, 총고정원가 100,000원, 공헌이익률 40%, 법인세율 30%이다.
구해야 할 값:
총변동원가, 영업이익, 영업레버리지도, 세후이익, 안전한계율이다.
주의할 조건:
공헌이익률은 매출액 대비 공헌이익의 비율이고, 법인세는 영업이익에 30%를 곱해 차감한다고 본다.

사용할 공식

공헌이익 = 매출액 × 공헌이익률
총변동원가 = 매출액 - 공헌이익
영업이익 = 공헌이익 - 고정원가
영업레버리지도 = 공헌이익 ÷ 영업이익
세후이익 = 영업이익 × 1 - 세율
손익분기점매출액 = 고정원가 ÷ 공헌이익률
안전한계율 = (실제매출액 - 손익분기점매출액) ÷ 실제매출액
이 공식을 쓰는 이유:
문제의 모든 선지가 공헌이익률에서 시작해 손익분기 구조와 세후이익까지 이어지는 원가·조업도·이익 관계를 묻고 있기 때문이다.

NoteBase

계산 과정

1. 공헌이익은 500,000원 × 40% = 200,000원이다.
2. 총변동원가는 500,000원 - 200,000원 = 300,000원이다.
3. 영업이익은 200,000원 - 100,000원 = 100,000원이다.
4. 영업레버리지도는 200,000원 ÷ 100,000원 = 2.0이다.
5. 세후이익은 100,000원 × 70% = 70,000원이다.
6. 손익분기점매출액은 100,000원 ÷ 40% = 250,000원이다.
7. 안전한계율은 (500,000원 - 250,000원) ÷ 500,000원 = 50%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총변동원가는 매출액에서 공헌이익을 뺀 값이므로 300,000원이 맞다.

② X
영업레버리지도는 공헌이익 200,000원을 영업이익 100,000원으로 나눈 2.0이다. 선지의 "2.5"가 틀렸고, 올바르게는 "영업레버리지도는 2.0이다"이다. 2.5라는 값은 고정원가나 다른 기준을 분모로 잘못 두면 나올 수 있는 오답이다.

③ O
세전 영업이익이 100,000원이므로 법인세 30%를 반영한 세후이익은 70,000원이다.

④ O
손익분기점매출액이 250,000원이므로 안전한계액은 250,000원이고, 이를 실제매출액 500,000원으로 나누면 안전한계율은 50%가 된다.

오답 포인트

영업레버리지도를 구할 때 분모를 영업이익이 아니라 고정원가나 안전한계액으로 착각하면 ②처럼 틀리기 쉽다. 또한 안전한계율은 안전한계액을 실제매출액으로 나눈 비율인데, 손익분기점매출액 자체를 바로 비율로 오해하는 실수도 잦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공헌이익률 문제가 나오면 먼저 공헌이익을 구하고, 그다음 영업이익과 손익분기점매출액을 계산한 뒤 각 선지가 어느 값을 묻는지 하나씩 대응시키면 된다. 영업레버리지도는 공헌이익 ÷ 영업이익, 안전한계율은 안전한계액 ÷ 실제매출액이라는 분모를 끝까지 유지해야 한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공헌이익률로 공헌이익을 먼저 구하고, 영업레버리지도는 공헌이익 ÷ 영업이익, 안전한계율은 안전한계액 ÷ 실제매출액으로 연결된다.

NoteBase

문 24. (주)한국은 연산품 X와 Y를 추가 가공 후 판매하고 있으며, 순실현가치법을 적용하여 결합원가를 배부한다. Y에 배부된 결합원가가 ₩3,000이라면, X에 배부된 결합원가는?

연산품	생산량	단위당 추가 가공원가	단위당 최종 판매가격
X	200 단위	₩ 50	₩ 400
Y	300 단위	₩ 100	₩ 200

① ₩3,500

② ₩5,000

③ ₩7,000

④ ₩10,000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순실현가치법으로 결합원가를 배부할 때 각 제품의 순실현가치 비율을 계산해 X의 배부액을 구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주어진 값:
X는 생산량 200단위, 단위당 추가 가공원가 50원, 단위당 최종 판매가격 400원이다.
Y는 생산량 300단위, 단위당 추가 가공원가 100원, 단위당 최종 판매가격 200원이다.
구해야 할 값:
X에 배부된 결합원가이다.
주의할 조건:
순실현가치법이므로 최종 판매가에서 추가 가공원가를 차감한 금액에 생산량을 곱해 배부비율을 구한다.

NoteBase

사용할 공식

순실현가치 = (단위당 최종 판매가격 - 단위당 추가 가공원가) × 생산량
배부비율 = 각 제품의 순실현가치 / 총 순실현가치

이 공식을 쓰는 이유:
추가 가공 후 판매하는 제품의 결합원가는 분리점 판매가가 아니라 추가 가공원가를 차감한 순실현가치를 기준으로 배부하기 때문이다.

계산 과정

1. X의 순실현가치는 $(400 - 50) \times 200 = 70,000$원이다.
2. Y의 순실현가치는 $(200 - 100) \times 300 = 30,000$원이다.
3. 총 순실현가치는 100,000원이므로 배부비율은 X : Y = 70,000 : 30,000 = 7 : 3이다.
4. Y에 배부된 결합원가 3,000원은 전체 결합원가의 30%이므로 총 결합원가는 10,000원이다.
5. 따라서 X에 배부된 결합원가는 $10,000 \times 70\% = 7,000$원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 3,500원은 정답이 아니다. X의 배부액은 순실현가치 비율 70%를 적용한 7,000원이다.
- 틀린 표현은 X에 배부된 결합원가를 3,500원으로 본 부분이다. 올바르게는 X에 배부된 결합원가는 7,000원이다.

② X
- 5,000원은 정답이 아니다. 5,000원은 총 결합원가 10,000원을 X와 Y에 반씩 나눈 값에 불과해 순실현가치 비율을 무시한 결과이다.
- 틀린 표현은 X의 배부비율을 50%로 본 부분이다. 올바르게는 X의 배부비율은 70%이다.

③ O
- 7,000원은 정답이다. X의 순실현가치가 70,000원, Y의 순실현가치가 30,000원이므로 X는 전체 결합원가의 70%를 배부받는다.
- 계산 결과 X에 배부된 결합원가는 7,000원이므로 이 선지가 옳다.

④ X
- 10,000원은 정답이 아니다. 10,000원은 Y에 3,000원이 배부되었다는 조건으로부터 역산한 총 결합원가이지 X의 배부액이 아니다.
- 틀린 표현은 총 결합원가와 X의 배부원가를 동일하게 본 부분이다. 올바르게는 총 결합원가 10,000원 중 X 몫은 7,000원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추가 가공이 있는 문제에서 최종 판매가격만 보고 비율을 잡거나, Y에 배부된 금액 3,000원을 곧바로 X와 비교하면 오답이 된다. 이 문항의 함정은 순실현가치와 총 결합원가를 구분하지 못하게 만드는 데 있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추가 가공 후 판매 문제는 먼저 각 제품의 순실현가치를 계산하고, 그 비율로 총 결합원가를 배부한다고 판단한다. 한 제품의 배부액이 주어지면 그 금액이 전체의 몇 퍼센트인지 역산해 총 결합원가부터 구하면 된다.

암기 포인트

순실현가치법은 최종 판매가에서 추가 가공원가를 차감한 금액으로 비율을 잡는 방식이다.

NoteBase

문 25. (주)한국은 종합원가계산을 적용하고 있으며 관련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기초재공품의 가공원가 완성도는?

○ 직접재료는 공정 초기에 전량 투입되며, 가공원가는 공정 전반에 걸쳐 균등하게 발생한다.

○ 가중평균법 또는 선입선출법 적용 시 완성품 환산량

구 분	가중평균법	선입선출법
직접재료원가	4,000 단위	3,000 단위
가공원가	3,200 단위	2,600 단위

○ 공손 및 감손은 없다.

① 30%

② 40%

③ 50%

④ 60%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가중평균법과 선입선출법의 완성품 환산량 차이에서 기초재공품의 기존 완성도를 역산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주어진 값: 직접재료 환산량은 가중평균법 4,000단위, 선입선출법 3,000단위이고 가공원가 환산량은 가중평균법 3,200단위, 선입선출법 2,600단위이다.
구해야 할 값: 기초재공품의 가공원가 완성도이다.
주의할 조건: 직접재료는 공정 초기에 전량 투입되므로 기초재공품의 직접재료 완성도는 100%로 본다.

사용할 공식

가중평균법 환산량 - 선입선출법 환산량 = 기초재공품이 전기에 이미 완성한 환산량이다.
직접재료는 100% 투입이므로 기초재공품 수량 = $4,000 - 3,000 = 1,000$단위이다.
가공원가 완성도 = $(3,200 - 2,600) \div 1,000 = 0.6$이다.
이 공식을 쓰는 이유: 가중평균법은 기초재공품의 전기 완료분까지 포함하고, 선입선출법은 당기 추가작업분만 반영하므로 두 방법의 차이가 기초재공품의 기존 완성분이 되기 때문이다.

NoteBase

계산 과정

1. 직접재료 환산량 차이는 4,000 − 3,000 = 1,000단위이므로 기초재공품 수량은 1,000단위이다.
2. 가공원가 환산량 차이는 3,200 − 2,600 = 600단위이므로 이는 기초재공품이 전기에 이미 완성한 가공원가 환산량이다.
3. 따라서 기초재공품의 가공원가 완성도는 600 ÷ 1,000 = 0.6 = 60%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계산 결과는 60%이므로 30%는 틀리다. 틀린 표현은 완성도를 30%로 본 부분이며, 올바르게는 600단위를 1,000단위로 나누어 60%로 본다. 30%는 가공원가 환산량 차이 600을 잘못 절반으로 보거나 기초재공품 수량을 잘못 잡을 때 나오는 값이다.
② X: 계산 결과는 60%이므로 40%는 틀리다. 틀린 표현은 완성도를 40%로 본 부분이며, 올바르게는 기초재공품 가공완성도는 60%이다. 40%는 가중평균법과 선입선출법의 의미를 혼동하여 차이값을 잘못 배분할 때 나오는 오답이다.
③ X: 계산 결과는 60%이므로 50%는 틀리다. 틀린 표현은 완성도를 50%로 본 부분이며, 올바르게는 직접재료가 초기에 전량 투입된다는 조건으로 기초재공품 수량 1,000단위를 먼저 구한 뒤 600을 나누어 60%로 계산한다. 50%는 직접재료 투입시점 조건을 놓치고 임의의 평균완성도를 가정할 때 나오는 값이다.
④ O: 직접재료 환산량 차이 1,000단위가 기초재공품 수량이고, 가공원가 환산량 차이 600단위가 기초재공품의 기존 가공완성분이므로 완성도는 600 ÷ 1,000 = 60%이다.

오답 포인트

직접재료는 공정 초기에 전량 투입된다는 조건을 놓치면 기초재공품 수량을 바로 읽어내지 못한다. 이 문제는 가중평균법과 선입선출법의 환산량 차이가 무엇을 뜻하는지 묻는 문제이지, 전체 완성품 수량을 다시 계산하는 문제가 아니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종합원가계산에서 가중평균법 환산량과 선입선출법 환산량이 함께 주어지면 먼저 두 방법의 차이가 기초재공품의 전기 완료분이라는 점을 확인한다. 직접재료가 초기에 전량 투입되면 재료 환산량 차이로 기초재공품 수량을 구하고, 가공원가 환산량 차이를 그 수량으로 나누어 가공완성도를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직접재료 차이 = 기초재공품 수량, 가공원가 차이 ÷ 기초재공품 수량 = 기초재공품 가공완성도이다.

NoteBase